

보이지는 翼工 두몸을 하나로 합친 커다란 것을 썼으며 퇴량을 받았다.

퇴량은 高柱(柱高營造尺 一〇尺)와 연결되었고 고주에서의 보아지는 길이 一尺 높이 六寸의 작은 部材를 썼다.

高柱를 받은 礎石도 花崗石製인데 平柱礎石은 方形이고 高柱礎石은 圓形이다.

架構는 半五檉집, 翼工집의 通式을 따랐다. 지붕은 맛배지붕, 천정은 우물받자, 內陣바닥은 마루, 퇴간에는 博을 깔았다.

천정으로 대들보 윗부분을 쥘 수 없어서 架構의 比例를 알 수 없었으나 平面은 正面對 側面이 二對一이고 高柱가 正面길이의 1/3이며 翼工의 길이는 平柱의 1/3이다. 翼工端과 柱心과의 거리는 高柱의 1/4로 보아지의 길이와 같다. 이 집에서 注目되는 것은 礎石과 花盤이다.

平柱와 高柱에 다른 形態의 礎石을 한 건물에 使用하는 例는 三國時代以來 各 遺跡에서 散見되나 상당히 키가 높은 方形礎石과 키가 낮은 圓形礎石을 混用한 例는 그리 많지 않다.

水原 華寧殿大門처럼 前後柱列에 八角形礎石을, 문은 다는 가운데 기둥술에 낮고 넓직한 方形礎石을 놓은 例는 大門이라는 특수한 用途 때문에 생긴 形態이지만 大成殿같은 正殿類의 건물에 이러한 配置를 한 것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平柱 柱間 中央部位 장방과 장혀 사이에 끼워 놓은 花盤은 唐草刻 仰華盤으로 침차와 翼工과 한가지 系類의 것이다. 이 形態는 李朝初中期 중심포집이나 중심포에 다포계양식이 가미된 절충식 건물에서 볼 수 있는 類形의 것과 흡사하다.

이웃인 水原城廓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으나 그 보다는 古格을 지녔다.

大成殿 이웃 건물의 팔각지붕 합각에서 또하나 주목할만한 部材를 點考할 수 있다.

朴工 아래 三角狀 합각을 벽들로 쌓고 그 중앙에 둥근모습의 것으로 눈을 박았다.

第九卷 第七號 通卷九十六號

지금까지 알려진 例는 많지 않으나 합각에 이런 부재를 박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흘러나오는 方式인 듯 짐작된다.

벽담에도 이런 둥근부재를 끼는 수법이 있다. 洛山寺垣牆, 서울 七宮의 垣牆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다. 이 수법은 합각벽의 처리와 相通한 다.

洪思俊先生님의 調査에 의하면 百濟時代의 遺品으로 花崗石製의 이 둥근 部材가 扶餘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아직 實見할 기회가 없어서 確言할 수 없으나 만일 이것이 百濟代 합각머리나 垣牆에 쓰여졌던 것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하면 대단히 흥미 있는 일이다.

南陽은 高句麗의 唐城郡, 新羅의 唐恩, 高麗의 江寧都護府 혹은 益州收으로 忠淸地方과 島嶼地方에서 漢城을 향하여 가는 길목의 要衝地이었다. 일찍부터 海路가 開拓되고 港灣施設이 있어 船舶의 出入도 있었다.

水原城郭 造營時에도 安眠島에서 伐木된 木材가 南陽鵬浦에 닿아揚陸되었었다.

南陽은 水原地方이 開發되기 전부터 크게 발전되어 있었던 곳이므로 郷校같은 公共建物の 造營도 다른 地方에 못지 않게 하였었다.

水原이 開發되면서 南陽은 小邑으로 轉落되었다. 郷校같은 公共建築物도 土豪들의 恣意에 따라 移轉을 거듭하게 된 悲運도 맛보게 되었다.

現 郷校는 一九三三年에 지금의 位置에 移建되었다. 整然하였을 配置는 無視되어 東西廡 등은 省略 脫落되고 말았다.

資料

新羅 崇福寺碑片

黃 壽 永

지난 四月 十六日 경주시內 古物商에서 購入한 다음의 五片은 모두



行)

數年前出土된 것이라고 한다. 入手直後인 四月十八日 申榮勳 文明大 兩氏는 出土場所와 그 경위를 確認코자 月城面 外東面 末方里의 崇福寺址를 조사하였는데 再建된 東·西三層雙塔 北方의 金堂址 西北角 附近의 一地點에서 同時發見되었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이들은 모두 小薄片으로서 기왕에 발견된 同碑片과 字體 字徑 등이 同一하다.

- (1) 學僧「碑」(크기 長七cm × 幅五cm 二行 字徑二cm)
- (2) 同志「珎」(크기 七·五cm × 六cm 厚一cm 二

- (3) 唐「神清」誠體(크기 六cm × 九·五cm 厚一·三cm 三行)
- (4) 大王奉「五·五cm × 五cm 厚〇·六cm 小字로서 字徑一cm 一行)
- (5) 國體「□和乙巳」故事直奉「長八·三cm 幅九cm 厚〇·九cm 三行)

① □內字는 缺刻된 것. 以上 東國大 博物館 所藏
 ② (3)는 同一片이 上下로 兩分된 것임(唐「神清遠體」誠中和乙巳)「金石遺文」正·續卷所載 崇福寺碑 및 「朝鮮金石總覽」上卷—附八、慶州 崇福寺碑 參照

尙州 柳谷里 三層石塔과 石燈材

鄭 永 鎬

慶北 尙州郡 洛東面 柳谷里二區 관기동(俗稱 관터)部落의 畚中에 石塔一基가 遺存하여 지난 一月下旬 筆者가 調査한 바 있는데 이에 對해서는 寶物古蹟調査資料나 韓國塔婆目錄等 諸記錄에 一切 보이지 않으므로 여기에 新資料로서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이 곳이 行政區域으로는 尙州郡內일지나 善山郡과 接境임으로 오히려 善山方面에서의 行路가 쉬운편이다. 善山邑에서 出發하는 定期車—쓰의 西行路線中 柳谷經由 尙州行便을 利用하여 約二〇km 되는 柳谷里관터에서 下車하면 곧 右側 路邊 畚中에 石塔이 보인다.

原位置로 推定되며 一帶가 寺址로서 過去에는 周邊에 瓦片이 散亂하였다고 하나 近年에 이르러 民家를 新築하고 農地로 耕作하게 됨에 모두 除去되었으므로 法堂址나 寺域等도 全히 찾아 볼 수 없는데 最近에도 農繁期에는 間或 瓦片이 出土된다고 洞民들은 말하고 있다.

石塔은 上·下二層基壇위에 塔身을 받고 있는 一般型인 바, 現在 基壇部는 完全하나 塔身部는 三層屋身이 缺失되었고 相輪部는 露盤과 仰花가 殘存하였으며 石燈臺石이 三層屋蓋 위에 重疊되어 있다.

基壇部는 上·下二重의 地臺石위에 마련되었는데 長大石 四枚로 下地臺石을 삼고 있으나 거의 埋沒되었으므로 上地臺石은 五枚의 長大石으로 이루어졌다. 下層基壇面石은 四枚로 構成되었으며 各面二區씩의 眼象內에는 下部 中央에 三山形의 귀퉁이 陽刻되었는데 流麗한 手法이 注目되었다. 下基甲石은 四枚石으로 되었고 그

上面 四隅는 合角이 뚜렷하며 角形의 낮은 받침과 四分圓의 물당으로 上基面石을 받고 있다. 上層基壇石은 四枚로 造立하였는데 兩隅柱와 中央一撐柱가 整然히 刻出되고 一枚石의 上甲石 下面에는 副椽은 없으나, 落水홈이 陰刻되어

